



**LS, 신년 맞아 불우이웃 위해 20억 쾌척**  
 LS그룹이 신년에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LS그룹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앞줄 오른쪽부터) 허영길 LS 이사, 안원형 LS 부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강주현 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KB국민은행,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협약**  
 KB국민은행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영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SC제일은행, GS리테일과 고객 편의증대 맞춘**  
 SC제일은행은 금융·유통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GS리테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 내 CD·ATM기에서 SC제일은행 거래 수수료를 낮춘다. 오는 20일부터 SC제일은행 고객들은 전국 GS25에 설치된 1만여 대의 제휴 CD·ATM기에서 SC제일은행의 기기와 동일한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필립모리스, 아태지역 우수 고용주 인증 획득**  
 한국필립모리스는 우수고용협회로부터 '우수 고용주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에서의 우수 고용주로 함께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에 인증을 준 TFI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고용주를 검증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프라빈 우파디에 한국필립모리스 피플앤컬처 총괄 전무(왼쪽)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고등급'**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주관한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건강검진의 관성과 사후 관리 관련 항목, 지역 사회 산업보건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해야



김필수의  
 차 이야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 7만대 정도의 보급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전기트럭이나 전기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안에 누적대수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올해에만 1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되긴 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매 고객의 혜택은 더 증가한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충전기 설치가 더욱 절실한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요금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기본요금 부과는 충전기 확산에 크게 역행하는 부분이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초소형 전기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 문제이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극히 일부 줄어들기 시작하면

서 동시에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기차는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시작한 반면, 초소형 전기차 보급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전기차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기다.

초소형전기차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보조금이 구매로 연결되는데 그역할이 크다. 2018년 450만원의 보조금이 지난해 42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연간 수천대 정도의 판매지만, 초소형 전기차의 가능성은 출퇴근용, 등하교용, 시장용, 관광지용, 무공해단지나 공장용 등 무궁무진 하다.

특히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 가득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는 전기차는 바로 초소형 전기차가 많다. 향후 입증된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탄생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일반 전기차 정책과 달리 길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크다.

최근 고가 차량에도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급 수입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럽과 같이 기준 판매가격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조금 연장 결정 및 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과 시장성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크게 다른 시장인 만큼 정부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하고 냉정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꼭 작년과 같은 420만원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CJ대한통운, 작년 누적 사회봉사 2.5만 시간

사랑의 도시락, 교통안전 캠페인 등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 95%로 ↑

CJ대한통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누적 사회봉사활동 2만5000시간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비행기로 지구 약 550바퀴를 도는 것과 맞먹는 시간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을 집계한 결과 총 2만5628시간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누적봉사활동 시간은 2만1545시간으로 이보다 4083시간(19%) 늘어났다. 특히 CJ대한통운은 2017년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만시간을 처음 돌파한 이후 3년 연속으로 2만시간을 넘어섰다.

봉사활동 참여율도 높아졌다. 2018년 봉사활동 참여율은 81%였지만 지난해 이보다 14%p 높은 95%로 상승했다.

CJ대한통운은 전체 회사 단위의 사회봉사조직인 '희망나눔' 봉사단 운



CJ대한통운은 2019년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19% 늘어난 총 2만5628시간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담긴 김장김치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와 함께 정기적으로 특수학교 및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정비해주는 '달려라 행복한 전동이'는 물류기업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 586명이 참여한 사랑의 도시락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 도시락

을 배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건강상태까지 체크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기여형 봉사활동으로 꼽힌다.

매년 연말 전국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실시되는 김장봉사(331명 참여)와 복지관 방문 봉사활동(918명 참여), 공부방 방문 봉사(514명 참여) 등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인사

◆ 통계청 ◇ 과장급 인사 △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희

◆ 한국인터넷진흥원 ◇ 본부장 보임 △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신대규 △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석래 △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황성원 ◇ 단장급 보임 △ 미래정책연구실장 최광희 △ 융합보안단장 이용필 △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 개인정보대응단장 이종화 △ 보안인증단장 김호성 △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박희운 △ 인터넷기반단장 조준상 △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희은 △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장 심동욱 △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장 이종구

◆ 한국고전번역원 △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장 이향배

## 부음

▲ 김배길씨 별세, 김현수·규성·영표·미리씨 부친상, 주철현(전 여수시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4878-4515  
 ▲ 임정수씨 별세, 홍준식(전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씨 모친상, 이봉규(현대자동차 좌동 서부점 대표)씨 장모상=15일 오전, 부산의료원 특2분향실, 발인 17일, 051-607-2990  
 ▲ 김태수씨 별세, 김용운(연합뉴스 콘텐츠평

가실 이사대우)·김용복(중앙종합관리과장)·김용희씨 부친상=1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2-220-9972

▲ 광현주씨 별세, 박승호(전 농협은행 지점장)씨 부친상, 박윤술(서울신문 사진부 기자)·익서(전문건설공제조합 과장)씨 모친상=14일 오후 8시 55분, 경기 안양평촌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10분, 031-384-4634  
 ▲ 양희정씨 별세, 양아다·기두(경희길 한의원 원장)·아선(뉴푸드 대표) 부친상, 김효성(kbc 광주방송 취재기획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062-527-1000